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관련 기사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사 / 매일경제(14.09.22.)>

매일경제

2014년 09월 22일

동양피스톤-재영솔루텍 등 7곳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동양피스톤·재영솔루텍 등 7곳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기술로 활용되는 산업이다.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6가지 산업이 이에 속한다. 뿌리산업은 국가 주력 산업의 근간을 이루면서도 영세하고 열악한 업종이라는 인식 때문에 인력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뿌리기업들이 이러한 편견을 깨고 탈바꿈하고 있다. △근로·복지환경 △경쟁력 안정성 △성장 가능성 등 삼박자를 동시에 갖춘 뿌리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

기업들 자체 노력에 화답해 정부 역시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뿌리기업에 대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복화 단지 8곳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내년에는 뿌리기업 복화 단지를 20개까지 늘리고 R&D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뿌리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7곳을 선정했다. 심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7곳

업체	대표자	업종
동양피스톤	홍순경	주조
나라엔앤디	김영조	금형
헨즈코퍼레이션	송원환	주조
신라엔지니어링	신영은	금형
재영솔루텍	김학권	금형
제이엔엘테크	전정환	표면처리
성진포머	손석희	소성가공

사 결과 엔진피스톤 등을 생산해 GM, 아우디, BMW 등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동양피스톤(주조)을 비롯해 나라엔앤디(금형), 헨즈코퍼레이션(주조), 신라엔지니어링(금형), 재영솔루텍(금형), 제이엔엘테크(표면처리), 성진포머(소성가공) 등 각 분야 7개 업체가 뽑혔다.

김정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은 "근로환경·복지후생·기술평가·재무건전성·고용안정성 등 항목을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면 평가를 통해 분석한 후 병점을 매겨 선정했다"며 "작업장 정도는 물론 학자금, 통근보조비 지급 여부 등 복리후생과 체력단련실 유무 여부에 이르기까지 평가 항목을 최대한 세분화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재영솔루텍) 기사 / 매일경제(14.10.06.)>

매일경제

2014년 10월 06일

재영솔루텍, 흰옷 입고 근무하는 쾌적한 금형업체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①재영솔루텍

흰옷 입고 근무하는 쾌적한 금형업체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산업의 근간이면서도 영세하고 열악한 업종이라는 인식 탓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런 편견과 달리 작업환경, 복리후생 등이 우수하고 건실한 뿌리기업들도 적지 않다. 매일경제신문은 뿌리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 공동으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7곳을 선정해 소개한다.



김학권 회장

연례 날동 장단에 있는 금형업체 재영솔루텍, 자본자, 가연물 금형용 생산이라는 여섯 직관들의 여름 작업복은 흰색 반팔 티셔츠다. 흰색 작업복은 피가 묻기 쉽고 세탁비용도 많이 들어 생산현장에서 자금력은 없어 예우도 받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예우다. 휴전 상황임은 알려주는데도 알려진 뿌리업종 가운데 하나에서 따듯한 느낌을 준다.

김학권 재영솔루텍 회장은 "생산현장에는 자동차 설계도를 들여와 어렵고 위험한 작업을



재영솔루텍 직원들이 작업용 근무복을 입고 있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거의 없다"며 "국가산단입지 혁신단 뿌리업종을 대폭 단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영솔루텍이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꼽히는 이유는 비단 작업환경 때문은 아니다. 김 회장은 5년 전 경기도 용인시 상운 키오(KIXO)로 인해 회사에 임했던 손실을 안고 있을 때 인원은 감축하지 않고 오히려 임금인상률을 통해 직원들 사기 진작에 더욱 신경을 썼다. 게다가 직원 전원이 정규직 신분으로 근무하면 또한 인건비가 적었다.

한지 날동장단 내 금형사업부

자동화로 작업환경 개선 키로 위기에 빠졌을 때도 인원 감축 대신 일감 몰아

에 근무하는 직원 115명 가운데 40%인 45명이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다. 숙련은 직원들 노후대비에 재영솔루텍은 혁신적 제안을 잇달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 예가 자체 개발한 금형 설계용 캐드프로그램 '템데스'와 ERP(자원관리)시스템 '템파스(MPaaS)'로 금형업체 특화된 설계프로그램과 ERP를 개발한 것은 재영솔루텍이 국내 최초다. 또 작업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전

라하여 공유하는 ERP시스템을 통해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1년에 한 번 우수원 성과를 낸 직원들 뿐아 우수하고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가 하면 각종 아이디어를 적극 권장한 직원에게 포상을 하고 있다. 또 시내에 80여 규모에 배워시험을 갖춰 휴식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이 배드민턴, 탁구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김 회장은 "특히 생산 배려에는 도제에서 마스터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뿌리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2014년 10월 14일

매일경제

금형업체 신라엔지니어링, 한여름에도 땀 안날 정도로 쾌적

한여름에도 땀 안날 정도로 쾌적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② 금형업체 신라엔지니어링

국내에서 자동차 프레스 금형을 가장 많이 제조하는 강소기업이 있다. 충남 아산테크노밸리에 있는 신라엔지니어링(대표 신용문)이 그곳. 이 회사 생산공장에 들어서니 납작한 형태의 자동차 측면 골격을 감싼 '사이드아우터(side outer)' 한 장이 보인다. 골격을 틀어 올리는 기계가 사이드아우터를 금형기에 옮겨놓자 상형(금형 상부 프레스)이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쾅' 하고 누른다. 정확히 1초 만에 우리 눈에 익숙한 자동차 측면 외관재가 만들어졌다.

신용문 대표는 "사이드아우터는 미세한 크랙이나 가공 주름 등을 교정할 수 있는 고도의 금형기

술이 있어야 안정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듯이, 뛰어난 금형기술이 없으면 아름답고 독특한 외형의 스포츠카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기술은 장인에게서 나오는 만큼 우수한 기술 인력들이 좋은 환경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이 회사 생산공장은 여느 제조공장과는 다른 점이 많다. 우선 공장이 넓고, 천장 높이가 무려 30m에 달하는 데다, 최고의 집진시설을 설치해 근로자들이 쾌적한 상태에서 근무한다. 여름철에도 많이 전하 나지 않을 정도란다. 이 냉매 관리팀장은 "우리 생산라인

을 벤치마킹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며 "특히 금형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직접 와서 보면 우선 근무환경에 놀란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신입사원 10명을 채용했는데, 이들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36억원의 매출을 올린 신라엔지니어링은 국내외 해외의 공급이 절반씩 차지하는데, 수출이 해마다 늘고 있다. 루프시트트레이, 르노, 닛산, 제너럴모터스(GM) 등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가 고객사다.

신 대표는 "청년들이 금형 기술



신용문 대표가 자동차 사이드아우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을 제대로 배우면 나중에 자기 사업도 할 수 있고 평생 먹고살 걱정이 없다"며 "대기업이나 IT회사 인력은 40~50대부터 내리막길을 타지만, 금형 인력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몸값이 더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아산/민석기 기자

2014년 10월 15일

매일경제

임금 복지, 인천서 알아주는 직장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③ 車 輪 업체 한스코퍼레이션

임금 복지, 인천서 알아주는 직장

인천 소재 한스코퍼레이션(회장 송현창) 공장 식당에서는 매일 점심마다 재미있는 비디오가 상영된다. 바로 본사 어린이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이다. 공장 근로자들은 자녀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점심식사를 즐긴다.

이 회사는 타이어 매대인 휠을 만드는 기업이다. 연간 1400만 개의 알루미늄 휠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분야 국내 1위, 세계에서는 3~4위를 다투는 하트렘퍼이다. 현대·기아차와 GM, 포드, 폭스바겐, 르노닛산 등 경쟁사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작년 매출은 약 5000억원.

한스코퍼레이션 공장은 8대 뿌리산업 중 용접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다룬다. 뜨거운 쇠를 직접 만든 금형에 부어 주조하고 소성가공, 표면처리와 열처리를 거쳐 단단한 휠로 만든다. 뜨겁고 무거운 휠을 다루다 보니 물리적 피로도가 꽤 크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인천에서 폐인이 있는 직장으로 통한다.

1972년 설립된 한스코퍼레이션은 송현창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큰 변화를 맞았다. 2세 경영자인 송 회장은 2004년 입사 후 공장과 각 부서를 돌아다니



송현창 회장이 본사 소문에서 휠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이종우 기자>

알루미늄 휠 국내 시장 1위

청년 후에도 근무 직원 많아

엄마·딸·사위 함께 다니기도

며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직접 체험했고, 2009년 사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공장 작업환경을 개선했다.

가장 먼저 작업공간의 온도가 높은 주조공정에 자동화기기를 도입해 수작업 비율을 낮췄다. 또 라인 사이사이 물탱크를 설치해 더위에 지친 작업자들이 쓸 수 있도록 했다. 땅에 쏙은 작업자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발 건조기도 비치했다. 작업복도 새로 만들었다. 단일 디자인의 기성복 한두 벌만 지

급하는 여타 공장과 달리 한스코퍼레이션은 공정별 특성에 따라 재질과 디자인을 달리한 5가지 제품을 주문 제작해 개인별로 3~5벌씩 나눠준다. 이렇게 만든 작업복은 공장 작업자는 물론 본사에서 근무하는 관리직 직원, 임원들까지도 유니폼처럼 입는다.

작업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송 회장은 직원들의 육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본사 사육에 어린이집을 지었다. 인허가와 시설을 갖추는 데 3년간을 걸렸고 지난해 11월 '리틀원즈'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리틀원즈'에서는 현재 직원 자녀 49명과 교사 13명이 생활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 발의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했다. 식단 역시 매 끼니 유기농 채소와 고단백질 반찬으로 구성된다.

송 회장은 "직원들이 자녀 걱정은 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수용인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지만 법규상 더 늘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 회사 청년은 만 59세다. 하지만 청년을 채용하고 해서 꼭 회사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직원이 원하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촉박직으로 전환해 원하는 기간만큼 근무할 수 있다.

송 회장은 "60세 이상 직원을 공장에서 심심장게 찾아볼 수 있고 67세인 직원도 있다"며 "공장 근로자끼리 추천도 활발해 임마와 딸, 사위까지 한가족에서 3명이 같이 근무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스코퍼레이션에서는 직원들의 지방적인 제안도 장려한다. 제안 적용 후 3년간 연간 효과금액의 12분의 1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연구개발(R&D) 무자나 복지비로 지출한다. 기발한 제안은 송 회장이 직접 아이디어상으로 지정해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순우 기자

제이엔엘테크, 석·박사 학비 지원...평균 34세 젊은 회사

석·박사 학비 지원... 평균 34세 젊은 회사

일하고 싶은 뿌리기업 ④ 제이엔엘테크

34세. 경기도 안산의 표면처리업체 제이엔엘테크(대표 전영하) 직원 80여 명의 평균 나이이다. 뿌리산업은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에 취직을 꺼린다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이런 편견과 달리 이곳은 젊은이들로 활력이 넘친다.

우선 회사는 직원들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 학사 과정은 물론 석·박사 학위를 따는 데 드는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매 주 2회 직원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육을 하는데, 이는 표면처리 연구 자료가 일본어로 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표면처리 설비를 가동할 때 소음이 매우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끄러운 펌프와 모터 설치 공간을 따로

마련해 철저히 방음 처리했다. 이 때문에 생산설비가 한창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작업장에서는 대화를 하는 데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

전영하 대표는 "표면처리 기술은 수소연료전지, 항공산업 같은 첨단산업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기술·연구 개발이 특히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이엔엘테크는 연구개발 인력과 엔지니어가 전체 직원 중 40% 수준이며 직원들이 해외 연수,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혁신적인 기술도 싹텄다. 금속 표면을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게 코팅하는 'DLC(Diamond-



전영하 대표(왼쪽)가 직원과 함께 건식플라스마 표면처리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김정범 기자>

Like-Carbon)' 표면처리 기술은 제이엔엘테크가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제이엔엘테크는 DLC 코팅을 하기 위한 건식플라스마 표면처리 장비를 국산화해 값비싼 수입제품을 대체했다. 현재 스마트폰 금형을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납품 중이며 지난해 매출은 109억원으로 매년 30%가량 성장하고 있다. <김정범 기자>

ABS용 핵심부품 기술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

일하고 싶은 뿌리기업 ⑤ 성진포머

ABS용 핵심부품 기술 <車 브레이크 시스템> 세계서 유일하게 보유

1994년 설립된 성진포머(대표 손석현)는 단조기술을 이용해 차량용 부품을 주로 만드는데 그중에서도 냉간단조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다. 냉간단조는 상온에서 소재에 순간적으로 압력을 가해 제품 형상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성진포머의 특화 기술은 차량용 브레이크 시스템(ABS)에 들어가는 초소형 부품을 만들 때 활용된다.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솔 시트(SOL SEAT)'라는 부품인데 크기는 작지만 ABS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부품이다.

이 초소형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세한 크기의 구멍을 내야 하는데 성진포머는 자체 제작한 작고 단단한 판을 이용해 순간적인 힘을 가해 찌르는 방식으로 직경 0.7mm 크기의 구멍을 뚫는다. 물성이 강한 소재까지 부딪치다 보니 편이 부러지는 일이 흔하게 발생했지만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기존에 없던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 편 하나로 뚫을 수 있는 부품은 대략 10만개에 이른다.

반면 일본·독일의 유력 업체



손석현 대표(오른쪽)가 자동차 ABS에 들어가는 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도 아직까지 주로 소형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낸다. 드릴로 공정을 처리할 경우 작은 흔적이 남아 이를 없애는 후공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손석현 대표는 "1초에 부품을 2개씩 만들 수 있는 대 기존 글로벌 업체와 비교해 10배 이상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이라며 "현재 홀 크기를 0.5mm까지 뚫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성진포머 부품은 1차 센터를 거쳐 현대·기아차는 물론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509억원 수준이다.

지금은 잘나가는 성진포머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여파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일감이 절반 이하로 폭 떨어져 회사가 존폐 위기를 맞은 것.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을 30%씩 반납하겠다고 나선 것. 고봉 분당을 위해 사무직 80여 명은 3개월간 급여 30%를 회사에 반납했다.

손 대표는 "직원들에게 일시 보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형편이 풀리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실제 몇 달 후 회사 매출이 올라가면서 보관한 월급 전액을 직원들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대우/김정범 기자

나라엠엔디, 현대차·GM 자동변속기 금형 공급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⑥나라엠엔디

현대차·GM 자동변속기 금형 공급

국내 시장점유율 1위... 기술인력 평균 17년 근속

1974년 경남 창원에 2530만여㎡(약 765만평) 규모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는 2400여 개의 대기업·중소기업이 있고 9만3000여 명이 일하고 있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다. 이곳에 위치한 나라엠엔디(대표 김영조)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대표적인 금형업체다.

금형은 부품을 찍어내는 일종의 '틀'이라고 보면 되는데 크게 프레스금형과 사출금형으로 나뉜다. 프레스금형은 0.5~6mm의 얇은 강판을 금형 사이로 통과시키면서 강판에 순간적으로 압력을 가해 형상을 찍어내는 방식이고 사출금형은 플라스틱 수지(Resin)를 금형 속에 주입해 냉각시켜 부품을 생산한다. 나라엠엔디는 이 두 종류의 금형을 모두 만들고 있다.

나라엠엔디의 전신은 LG전자 소속 금형사업부다. LG전자는 IMF 시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형사업부를 분사했고 이때 나온 LG전자 직원 185명이 설립한 회사가 바로 나라엠엔디다. 지난해 나라엠엔디가 올린 매출액만 약 950억원 수준이다. 수출액이 매출의 절반을 넘는 대표적인 수출기업이기도 하다. 나라엠엔디는 현재 전통 제조 강국인 독일, 일본 등 총 16개국에 자동차·가전용 금형을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조 대표가 자체 생산 금형으로 만든 '트럭 컨버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연 독자 개발한 제조기술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차량용 자동 변속기(오토머션) 금형은 국내시장 점유율 1위, 해외시장 5위권에 해당한다.

나라엠엔디는 1년6개월을 금형 개발에 매달린 결과 2000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트럭 컨버터를 생산할 수 있는 금형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국내에서 해당 금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나라엠엔디가 유일하다. 김영조 대표는 "기어단수가 한 단계 높을수록 동상 연비가 6~10%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나라엠엔디는 9단 변속까지 가능한 부품을 생산하는 금형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 나라엠엔디 금형으로 만

든 트럭 컨버터는 현대·기아차, GM, 포드 차량에 들어간다.

자체 개발한 기술은 어떤단어 아니다. 기존에는 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 때 통상 프레스에서 소재를 찍어낸 후 절삭가공을 통해 마무리해야 했다. 반면 나라엠엔디는 추가공할 필요 없이 프레스 과정만 거쳐 부품을 완성하는 금형을 개발했다. 이럴 경우 생산성이 무려 5배 정도 향상되는데 제조 강국 독일에서도 이 금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1곳에 불과하다.

이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꾸준히 투자한 결과였다. 현재 나라엠엔디 직원 중 금형부문의 인원 25%가량이 금형기술연구소 소속으로 연구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현장 기술자들의 평균 임력은 17년에 이르며 금형부문 종업원 84%가 평균 2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탄탄하다.

북자에도 신경 써 자녀 2명까지 대학 학자금 50%를 지원하고 수를 바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직원들에게 매일 업무시작 전 중국어, 일본어, 영어 가르치고 있다. 김 대표는 "외부에서도 생산라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나라엠엔디를 꾸준히 찾고 있다"며 "생산현장에 전공생 냉난방 장치를 가동하고 설비 투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김정범 기자